



첫눈 오는 날엔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는 거야 연극열전2 <서툰 사람들>

청순이 빛나는 이유는 그 자신이 빛나고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25살, 누구도 남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나이에 그 아름다움을 깨닫게 모르는 두 남자가 마주한다. 그런데 이거, 상황이 좀 웃습다. 그들이 마주친 곳은 다름 아닌 여자의 집이고 남자는 그 집을 뒤흔들어온 도둑이다. 게다가 이 도둑의 도둑질, 원지 모를 구렁이 가득하다. 흠칫갈 것이 없어서 미움이라도 도둑질에 가뭇까하는 심보는 분명 아니었을텐데! 고부 어머님 눈발이 날리는 한겨울, 어설픈 도둑과 젊은 여자집주인이 벌이는 좌충우돌 우왕좌왕, 도둑질보다 더 서툰 사랑영감과 보고서의 맛이 온다!



일시: 2007년 12월7일 ~ 2008년 3월2일
 화목금8시, 수4시8시(단, 12월26일 8시 공연 1회 진행)
 주말공휴일3시6시, 월요일
 (특별공연: 12월24일 4시8시, 12월31일 8시)
 구경공연: 2월6일 ~ 8일 4시 공연 1회 진행)
 장소: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작,연출: 장진
 출연: 류승룡, 강성진, 장영남, 한재영, 김원혜, 이상훈
 문의: 766-6007

2004년 대학로를 떠돌다하게 했던 '연극열전'이 '연극열전2'로 다시 돌아온다. 그간 연극에 대한 사랑을 놓지 못했던 배우 조재현이 전체 프로그래머로 참가해 작품 라인업 선정, 배우 캐스팅, 홍보, 마케팅 등에 발 벗고 나선 '연극열전2'는 연극의 대중성 회복을 최우로 삼고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그리고 바로 이 대단원의 막을 올리는 첫 작품은 장진의 코믹소극극 <서툰 사람들>이다. 전 '연극열전'의 프로그래머이자 <텍스트리뷰>의 각,연출로 관객의 큰 호응을 얻은 장진 감독이 '연극열전2'의 첫대문을 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 게다가 <서툰 사람들>은 23살 청년 장진이 쓰고 지난 10년간 부산 가마골 소극장에서 장기 레파토리로 공연되며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낸 작품으로 그동안 연극을 접하지 않았던 관객들도 '연극'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으리라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 보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실이 작품을 장진 본인이 연출하는 것은 처음, 장진 연출 스스로도 '오랫동안 본인이 직접 연출해 보고 싶었다.'라고 말해온 평범한 듯 하지만 특별한 연극 <서툰 사람들>, 장진사단의 총일점 장영남을 비롯해 <텍스트리뷰>의 강성진, 별순검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류승룡, 그리고 연극무대에는 처음 도전하는 한재영까지, 배우들의 연연만 보아도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한번 등장하면 무대 뒤로 들어갈 줄 모르는 장진연극의 버거운(?) 역할들을 자기들만의 색깔과 상대배우와의 합진 호흡을 담아 맛있게 버무려낸다. 갑질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엄중한 캐릭터들의 엇기발랄한 무대, 정박자가 아닌 엇박자의 웃음을 선사하는 장진식 코미디. 이 겨울, 그가만 들어내는 공간과 시간 속에는 기분 좋게 맛깔진 웃음이 가득하다.

흠칠 건 다 흠치셨나요?

중학교 영어 교사인 화이의 독신자 아파트에 좀도둑 덕배가 들어온다. 군대를 갖 제대하고 도둑전선에 뛰어들어 그는 어리버리한 점이 한두개가 아니다. 수침을 꺼내들고 빗을 묶는 법을 연구하는가 하면, 실세없이 조질대는 집주인에게 꼬박꼬박 대담까지 해준다. 화이 또한 만만치 않다. 제대로 된 가전제품 하나 없는 자기 집에 온 도둑이 불쌍해서 비상금도 털어가라고 하고, 상대가 무서운 도둑이라는 것도 잊고 소리치며 대들기까지 한다. 이러다 보니 그들은 서로에게 오히려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친구가 되기로 하는데... 이런 순간도 잠시,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는 아랫층 남자 김추락의 출현으로 동네 경찰은 화이네 집을 찾아와 덕배를 긴장하게 하고, 자살소동이 잠잠해 질만 하니 갑자기 영입사원 서팔호가 찾아와 화이에게 프로포즈를 한다. 가카스로 그를 보내고 나니 이번엔 화이의 별난 아버지 유달수가 찾아와 덕배를 남자친구로 오해하지를 않나. 상황은 점점 알쏭달쏭 뒤죽박죽. '누가 뭘 흠치러 들어오긴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연극, 살아있다는 즐거움

연출가 장진

아직까지 30대였던 적보다 20대였던 적이 더 많지만, 다시 읽어보니까너무 답살이기도 해요. (웃음) 극예술에 관한 미숙함도 미숙함이지만 생각자체가 코미디이던 웃음 안에 이미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고, 웃음으로 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때는 뭐 그렇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넣었나 싶을거죠. 크케는 아니지만, 연극이 막 막해지려고 노력하고 '이건 좋은 연극이야' 라고 말해주는 부분은 다 뺐어요. 편지를 쓸 때는 정말 아무 생각없이 썼다는 게 <서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기분좋은 작품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초고는 제대하기전 2,3주 남겨놓고 썼으니깐요, 사실 제대 2,3주 남겨놓은 군버리는 정말 행복하죠. 할 일도 없고 (웃음) 아무 고민 없이 만들었으니깐 이런 소극이 나온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작품은 연애극이거든요! 연말 연시에 기분 좋게 관객들과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연극직업은 개인으로는 무시못할 고민이 가득하지만 상업적 부담감도 덜하고 진짜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같이 작업하는 배우분들 모두 좋은 친구들, 후배들이고 젊은시절부터 가열차게 함께 달려온 선배님이니깐요. 작업하는게 즐겁지 않을 수 없죠.

유화야 죄송해요 - 힘드시면 그냥 - 칭칭 막 웃으세요.

장덕배 처음에는 잠깐 상징적으로 걸터다니던 그 다음부터는 무슨 원칙으로 대하듯이 하네.

넌 도둑놈이긴 해도 그리 나빠보진 않고...

깜박 잊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서문 집주인과 그것도 모르고 고생고생 해서 문을 열고 들어 온 서문 도둑의 만남. 나름 몰타주도 나와 있다며 지명도를 자랑하는 도둑이나, 그래도 명색이 도둑이라는데 호기심 나는 것은 꼭 물어보고 때론 혼수까지 두는 집주인이나, 둘다 관객의 허를 찌르는 매한가지. 이것이 바로 <서문 사람들>의 즐거움이다. 도둑과 집주인인 선생이 극의 진행과 함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다가도 서로를 챙겨주며 우정을 나누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명백한 실정을 살짝 비틀어 전혀 다른 시각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장진식 코미디다.

그리고 이 코미디의 뒤편에는 굳이 꺼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셋봉날같은 따뜻한 속마음이 숨어있다. 시간이 지남수록 그들은 도둑과 집주인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일에 서투른 청년들이며 여실히 느껴지며,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있자면 곡목거리며 웃음이 터지다가도 웬지 모를 예뻐한 마음이 피어나는 것이다. 화이와 덕배는 그저, 스물다섯해를 고군분투하며 삶에 맞닿으려고 노력한 여자와 남자, 아니 사람들일 뿐. 서투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그 시절 작가처럼 밝고 빛나는 세월 속에 서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럼, 이제 우린 친구가 되는건가요?

서문 사람들, 요즘 주위를 둘러보아도 어디 그렇게 서문 사람들이 있던가. 혹은 그렇게 서툰다면 이 발빠른 세상 속에서 과연 살아남거나 할 수 있을까. 장진의 코미디에 녹아있는 서문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로망이다. 도둑질에 서툰고, 사람고백에 서툰고, 시집가는데 서툰고, 약수를 뜨는 것조차 서투르네, 그렇게 서툰어도 하하호호 즐겁게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서투름을 숨기고 배덕배덕한셀로판지처럼 누가 더 잘났나 겨루는 것이 아니라 서문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으면서, 첫눈 오는 날엔 데이트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려는 세상. 얼굴은 못내 빨개지더라도 살며시 진짜를 내밀 수 있는 세상. 서문 사람들이 하는 서문 사람이야기. 서둘러서 더 예쁜이야기. 착한 사람은 '나 착하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티가 나는 법. 이 연극, 아무리 착한 부분을 없앴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얀 겨울 속 내리쬐는 햇살처럼 투명하고 따사한 웃음이 흘러넘친다.

글: 이가원 기자 (digabesm@naver.com)

사진: 최은선 (격연) | 자, susano77@tntmail.com | 문승아트센터 싸이더컴퍼니 제공



세상과 더불어, 세상을 가지고 놀다 연희단 거리패 <탈선 춘향전>

소화지희(笑話之戲)란 즉흥적인 익살과 재치를 부리며, 재미있는 이야기나 말재주를 이용해 연출한 조선시대의 풍자적인 연극을 일컫는다. 뚜렷한 위계질서와 엄연한 계층이 존재했던 그 시절에도, 이렇게 신명나게 뛰어놀던 세상을 가지고 놀았던 걸 보면, 당시 사회는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도발적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엔 과잉된 표현의 자유 때문인지 장막, 스타일링 대상을 비꼬아 통렬하게 잔살을 휘둘러 풍자의 묘미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통탄할만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 소화지희에 기반을 둔 <탈선 춘향전>이 선보일 한국 전통 코미디의 무대가 반가운 것은 비단 그 시도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이 내는 춘향전의 세계는 선로를 이탈해 어디로 차달을지 몰라 위험하고, 그래서 더욱 짜릿하다.

일시 : 2007년 12월 20일~12월 30일 평일 8시, 토 5시 8시, 일 3시, 월 5시
장소 : 개밀라극장
원작 : 이주홍 재구성, 극본 : 박성환, 이운덕 연출 : 이운덕
출연 : 김미숙, 윤영준, 신주연, 배보람, 오성택, 허완경, 정연진, 안진준, 신재호, 조승희, 김하영, 한혜진
문의 : 763-1268



숨어있던 작품의 발굴

1949년 작가 이주홍은 해방 한국연극사상 최초로 재일교 양식의 <탈선 춘향전>을 원형했다. 그러나 이후 이 작품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취를 감추었다가, 2006년 향교 이주홍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부경대학교 극장에서 재발굴 공연되면서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연출가 이운덕은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한 이 작품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국립합극단의 판소리 작곡가인 박성환과 공동으로 텍스트를 재구성했다. 2007 밀양어름예술축제로서 관객들의 호응 속에 제 모습을 갖춘, 그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탈선 춘향전>이 우리 마당극 연극사에 새로운 의미를 더한 것이다.

세상을 뒤집어 보니,

방자는 뽕콩에게 형님이라 부를 것을 요구하고, 춘향은 그 자신이 마치 옥의 화신인 양 시종일관 거침없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비속어를 남발한다. 세상을 뒤집어 보니 아니 뭘게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상전과 하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위치가 뒤바뀌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더불어 탈선을 꿈꾸기 시작한다. 특히 지난 해, 한국판 억척어멈으로 관객들을 만난 바 있던 배우 김미숙은 이번 작품에서 1, 2막을 주도하여 웃음의 정곡을 찌르는 방자 역을 맡아, 또 한번 기존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는다. 감히 누가 방자를 뽕콩이 춘향에게 보내 사람의 메신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한바탕 놀음이 끝나고 나면 담당했던 일상다반사의 어지럽게 흩어진 허상들이 일거에 사라질 것이다. 절반 이상이 육으로 구성된 절편한 대사로, 몸을 들쭉이게 만드는 판소리 가락과 춤사위도 육은 스트레스를 날리고, 안정된 질서가 부여된 삶의 한 순간을 감히 거꾸로 보도록 만들 것이기에, 그러나 흐트러진 질서는 언제 그랬나 싶게 금세 제자리를 찾을 것이며, 우리는 또 그렇게 같은 나날들을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이미 마음엔 불온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그래서 이 순간의 탈선과, 다시 끼워 맞춰진 삶의 조각들이 공허하지 않다. 풍자의 진정한 미학이 바로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탈선 춘향전>에 눈물을 속 빼도록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 누구도 굳이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공연예술의 힘이다.

글: 김솔기 기자(sol.sogi@naver.com) / 사진: 연희단 거리패 제공

